통계로 본 서울가족의 모습
[e-서울통계 81호]

[요 약] .................................................................................................................. 1
1. 가족구조의 변화 .............................................................................................. 2
  1-1. 세대구성별 가구유형 .............................................................................. 2
  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구유형 ............................................................... 3
  1-3. 조부모와 손자녀 가구 ......................................................................... 4

2. 가족관계의 변화 ................................................................................................ 5
  2-1. 부모 ........................................................................................................ 5
  2-2. 자녀 ....................................................................................................... 6
  2-3. 부부 ...................................................................................................... 7
  2-4. 가족관계 만족도 ................................................................................... 8

3. 가족형성의 변화 ................................................................................................ 9
  3-1. 혼인 ...................................................................................................... 9
  3-2. 이혼 .................................................................................................... 10
  3-3. 국제결혼 및 이혼(다문화 가족) ......................................................... 11

정보공개정책과(행정국)
자료설명 및 유의사항

○ (2010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 통계청
  - 조사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세 특성을 파악, 각종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 제공,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집(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조사기간 : 2010. 10. 22.  11. 15. (25일간), 조사기준 시점 : 2010. 11. 1.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본문의 2000년, 201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이며,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 (2010~2035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 작성목적 : 가구의 양적 질적 변화 정보는 각종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유용함. 최근 가구 분화 및 해체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가구의 규모나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어, 이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한 장래가구추계가 필요하게 됨.
  - 활용자료 : (1) 기준가구 작성, 장래가구추계 및 가구구성 추정 : 1990-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장래 가구추계 대상인구 추계 : 2011 장래인구추계(2010~2060)
                (3) 장래 혼인상태별 인구추계 : 인구동태자료 및 생명표(1990~2010)
  - 작성대상기간/시점 : 2010~2035년(25년간 : 매년 7월1일 기준)
  ※ 본문의 2013년*, 2023년* 가구통계는 장래가구추계 결과 활용, e는 추정치임.

○ (2013 사회조사)통계청
  - 작성목적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작성방법 : 본문의 내용은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약 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전국은 17,66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조사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5. 11.  5. 26. (16일)
  - 조사주기 : 1년(매년)

○ (2013 혼인 및 이혼통계) 통계청
  - 조사목적 :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동요인인 혼인 및 이혼 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초자료 :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1.1.~2013.12.31까지 전국 읍.면사무소 및 시.구청(구의 국민등재의 제외)에 신고한 혼인 및 이혼신고서의 신고내용
  - 작성근거 : 통계법 제 17조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3호, 인구동향조사)
  - 작성시점 : 매년 12월 31일 기준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조사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가족구조의 변화: 2000년 → 2013년)
  • (가족구조) 1인·부부·한부모 가구 등의 증가로 가족구조는 1~2인 가구 중심의 소핵가족화로 변화
    ▶ 2013년 가족구조는 일반가구 중 부부+미혼자녀 35.1%, 1인 가구 26.1%, 부부가구 12.9%, 한부모 가구 10.3%
    ▶ 1~2인 가구: 2013년 178만가구로 일반가구의 49.9% 차지, 2000년 대비 73.3%(753천가구) 증가
  • (여성 가족주) 2013년 106만가구로 일반가구의 29.7% 차지, 2000년 대비 75.9%(457천가구) 증가
  • (분거가구) 2010년 일반가구 350만4천가구 중 38만가구(10.8%) 가족과 밀어져 자매, 주원인은 직업·학업
  • (미혼·연혼 가구) 2013년 104만9천가구로 일반가구의 29.4% 차지, 2000년 대비 80.6%(468천가구) 증가
  •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부부 및 1인가구) 2013년 343천가구로 일반가구의 9.6%, 2000년 대비 206천가구 증가
    ▶ 65세이상 가구주는 2013년 60만8천가구로 일반가구의 17.0% 차지, 2000년 대비 346천가구 증가
  • (조부모와 손녀자 가구) 1995년 3,875가구에서 2013년 23,344 가구로 6배 증가
  • (12세이하 자녀의 주간 보육수용맥) 2010년 낮smith 동안 흑어 또는 아동센터 보육은 45만명(12세이하 아이 중 41%)
    ▶ 12세이하 중 부모가 일부라도 들보는 아동 50.4%, 학원 21.7%, 어린이집 15.4%, 조부모 돌봄 13.2% 등(복수응답)

■ (가족관계의 변화)
  • (부모)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60세이상 인구 2005년 50.7% → 2013년 71.4%로 증가
    ▶ 2013년 60세이상 자녀와 같이 사는 이유는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 39.7%, 본인의 독립생활 불가능 30.6%
    ▶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는 따로사는 것이 편하서 35.3%, 독립생활 가능 34.0%, 자녀에게 부담될까봐 23.0% 순
  • (자녀) 노부모 부양은 자녀 책임(28.7%)보다는 가족 및 정부·사회의 공동책임(54.0%)으로 부양의식 변화
    ▶ 따로 사는 부모님과 만남은 1년에 몇 번(42.7%), 전화통화는 일주일에 한 두 번(45.8%)이 가장 많아
  • (부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여성(58.6%)이 남성(41.6%)보다 높아
    ▶ 가사분담 생각은 공동분담(41.5%), 부인 전적책임(3.9%)이나, 실제는 공평분담(21.9%), 부인 전적책임(23.7%)
  • (가족관계 만족도) 2012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54.2%, 남성(56.7%)이 여성(52.0%)보다 높아
    ▶ 여성 만족도는 자녀(67.4%)>부모(61.8%)>배우자(57.2%)순, 남성은 배우자(70.9%)>자녀(69.7%)>부모(62.1%)순

■ (가족형성의 변화)
  • (2013년 혼인) 2013년 68,819건(남편기준)으로 2003년 대비 5.4%(3,931건) 감소
    ▶ '13년 평균혼연령 2013년 대비 남성은 21세(30.5~32.6세), 여성은 24세(28.0~30.4세) 늦어져
    ▶ 만 15세이상 서울시민의 결혼관은 선택사항이라는 점용 증가(2008년 28.2% → 2012년 34.0%)
  • (2013년 이혼) 2013년 20,126건(남편기준)으로 2003년 대비 38.1%(12,373건) 감소
    ▶ '13년 이혼한 부부 중 동거기간 20년 이상 부부이혼 31.8%, 0-4년이내 21.3%, 2010년부터 황혼이혼이 신혼이혼 추월
    ▶ 이혼하자는 안타까운 의견 감소(08년 57.3%→2012년 44.8%), 이혼은 선택사항 의견 증가(08년 33.2%→2012년 42.1%)
  • (외국인과 결혼) 2013년 5,559건으로 이중 외국인 아내와 혼인 3,223건, 외국인 남편과 혼인은 2,336건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2013년 2,272건으로 이중 외국인 아내와 이혼 1,487건, 외국인 남편과 이혼 785건
1. 가족구조의 변화

1-1. 세대구성별 가구유형

2013년에 가족구조(세대구성별 가구유형)는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35.1%(1,253천가구)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가 26.1%(932천가구), 부모 12.9%(461천가구), 한부모+자녀가 10.3%(367천가구), 세대이상 가구의 6.6%(201천가구)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및 세대이상 가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 부모·한부모 가구 등의 증가 추세로 서울의 가족구조가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가족으로 변화하고 있다.

* 그동안 가족형태에서 가장 대세였던 부부+미혼자녀 가구는 2013년 125만3천가구로 일반가구의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가구의 49.8%를 차지하였던 2000년 153만6천가구에서 18.4% 감소한 것임. 2023년에는 일반가구의 28.4%로 감소할 전망임.

* 1인가구 13년 새 85.6% 증가하여 2013년 932천가구이며 일반가구의 26.1% 차지, 2023년 29.6% 전망

* 부부가구 13년 새 60.3% 증가하여 2013년 461천가구이며 일반가구의 12.9% 차지, 2023년 15.7% 전망

* 한부모가구 13년 새 35.9% 증가하여 2013년 367천가구이며 일반가구의 10.3% 차지, 2023년 10.9% 전망

1-2인 가구는 2013년 178만가구로 일반가구의 49.9%를 차지하였으며, 2023년에는 57.7%가 될 전망.

<table>
<thead>
<tr>
<th>세대구성별 주요 가구유형</th>
<th>세대구성별 가구수 및 구성비 추이</th>
<th>(단위: 천가구, %)</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00년(A) 가구</td>
<td>2010년(B) 가구</td>
</tr>
<tr>
<td>비중</td>
<td>가구</td>
<td>구성비</td>
</tr>
<tr>
<td>일반가구(계)</td>
<td>3,086</td>
<td>100.0</td>
</tr>
<tr>
<td>부부+미혼자녀</td>
<td>1,536</td>
<td>49.8</td>
</tr>
<tr>
<td>1인 가구</td>
<td>502</td>
<td>16.3</td>
</tr>
<tr>
<td>부부가구</td>
<td>287</td>
<td>9.3</td>
</tr>
<tr>
<td>한부모가구</td>
<td>270</td>
<td>8.8</td>
</tr>
<tr>
<td>세대이상 가구</td>
<td>228</td>
<td>7.4</td>
</tr>
<tr>
<td>기타가구</td>
<td>263</td>
<td>8.5</td>
</tr>
</tbody>
</table>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2010년), 장학가구조사(2013년, 2023년), 국가통계포털(KSSS) e-서울 통계 81호 |

서울 가구의 또 다른 가족구조 변화는 직장 및 교육 등의 이유로 가족원 중 일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분거가구의 발생임.

* 2010년 분거가구는 38만 가구로 일반가구(350만4천가구)의 10.8% 차지함.

* 분거가구의 주원인으로는 직업 때문 44.2%, 학업 때문 34.5%, 나머지는 군입대 등 기타 있음.
1-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가구유형
여성 가구는 2013년 106만가구로 일반가구의 29.7% 차지, 2000년 대비 75.9%(457천가구)↑
미혼·이혼 가구는 2013년 104만9천가구로 일반가구 중 29.4%, 2000년 대비 80.6%(468천가구)↑
→ 2013년 유배우 가구는 2000년 대비 2.4%↓, 2010년 유배우 가구 중 9.5%는 배우자와 따로살아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부부 및 1인가구는 2013년 343천가구로 일반가구의 9.6%, 2000년 대비 206천가구 ↑

□ 여성 가구주 2013년 106만가구로 일반가구의 29.7% 차지, 2000년 대비 75.9% 증가
○ 여성가구주는 2000년 60만3천가구에서 2013년 106만가구로 13년 새 75.9%(457천가구) 증가함.
○ 여성가구주 비율은 2000년 19.5%에서 2013년* 29.7%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충 가구(일반가구에 한함)의 34.7%를 차지할 전망임.

□ 미혼·이혼 가구 2013년 104만9천가구로 일반가구의 29.4% 차지, 2000년 대비 80.6% 증가
○ 서울인구의 혼인상태가 변화됨에 따라 미혼·이혼 가구는 2000년 58만1천가구에서 2013년
104만9천 가구로 13년 새 80.6%(468천가구) 증가하였음. 일반가구에서 미혼·이혼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8.8%에서 2013년* 29.4%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35.6%가 될 전망임.
○ 반면, 유배우 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2.9%에서 2013
년* 61.6%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55.6%로 감소할 전망임.
○ 또한, 유배우가구 중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비동거 부부가가가 2010년 211천가구로
2000년(143천가구) 대비 47.6% 증가하였으며, 유배우 가구 중 9.5%를 차지함.

□ 가구주연령 65세이상 부부 및 1인가구 2013년 343천가구로 전체의 9.6%, 2000년 대비 2.5배 증가
○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가구는 2000년 26만2천가구에서 2013년 60만8천가구로 13
년 새 2.3배 증가하였으며, 이중 가구주연령 65세이상 부부 및 1인 가구는 2000년
13만7천가구에서 2013년* 34만3천가구로 13년 새 2.5배(20만6천가구) 증가함.
○ 가구주 연령 65세이상 부부가구 및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4%에서 2013년* 9.6%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 14.5%가 될 전망임.

<table>
<thead>
<tr>
<th>&lt;가구주 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별 가구 수 및 가구 구성비 현황&gt;</th>
</tr>
</thead>
<tbody>
<tr>
<td>(단위: 가구, %)</td>
</tr>
<tr>
<td>구분</td>
</tr>
<tr>
<td>일반가구(개)</td>
</tr>
<tr>
<td>가구주</td>
</tr>
<tr>
<td>남성 가구주</td>
</tr>
<tr>
<td>여성 가구주</td>
</tr>
<tr>
<td>미혼·이혼 가구</td>
</tr>
<tr>
<td>결혼부부 가구</td>
</tr>
<tr>
<td>미혼·이혼 가구</td>
</tr>
<tr>
<td>한국 가구주</td>
</tr>
<tr>
<td>기타 가구주</td>
</tr>
<tr>
<td>혼인상태별</td>
</tr>
<tr>
<td>미혼 가구주</td>
</tr>
<tr>
<td>미혼 가구주</td>
</tr>
</tbody>
</table>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정조(2000년, 2010년)', 파라메트리스(2013년, 2023년) 및 국가통계포털(KOSIS) e. 추정치
(주) 2000년 계정 혼인상태별 미입 1가구 포함, 65세이상 부부가구는 가구주연령이 65세이상을 말하며, 배우자 연령은 65세이상이 아닐 수 있음을.
1-3. 조부모와손자녀가구
조손가족(조부모+미혼손자녀)가구 수는 1995년 3,875가구 → 2013년 23,344가구로 6배 증가 2010년 12세이하 중 남동안 부모가 일부라도 돌보는 아동 50.4% 학원 21.7% 어린이집 15.4% 조부모 13.2% 등 → 이외에 낮시간 홀로 또는 아동끼리 보내는 어린이는 4.1%로 4만5천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 및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유형의 구조적 변화는 노인이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함께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가구 증가 및 아동의 보육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

  ○ 전체 일반가구에서 조손가족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0.1%에서 2013년 0.7%로 비율은 높지 않으나 구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1.0%를 차지할 전망임.
  ○ 또한 조손가족 가구에 살고 있는 만15세미만 아동 수는 1995년 3,385만에서 2010년 9,544만으로 2.8배 증가하였음.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아동, 10% 표본) 통계에 따르면, 낮 시간 홀로 또는 아동끼리 보내는 12세이하 어린이가 2010년 4만5천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12세이하 아동의 주간 보육상태(단일·복수용담)를 보면 자녀의 부모가 일부라도 돌보는 경우는 50.4%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학원 21.7%, 어린이집(놀이방) 15.4%, 조부모 13.2% 등의 순임.
  ○ 특히, 이중 대부분의 낮 시간을 홀로 또는 또래와 보내는 12세이하 아동이 4만5천명으로 2010년 12세이하 아동 109만1천명 중 4.1%를 차지하고 있음.

<table>
<thead>
<tr>
<th>&lt;조부모-손자녀 가구&gt;</th>
<th>&lt;12세이하 아동의 주간 보육상태(단일·복수용담, 2010년)&gt;</th>
</tr>
</thead>
<tbody>
<tr>
<td><img src="image" alt="Graph" /></td>
<td><img src="image" alt="Graph" /></td>
</tr>
</tbody>
</tabl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경제가족추계, 국가통계포털(KOSIS) e: 추정치, 아동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결과임.
 아동보육상태는 가장 많은 2세이하 선택하도록 조사된 복수용담(중복응답)인 경우로 보육상태별 아동 합계가 전체 아동수(109만1천명)와 일치하지 않음.
2. 가족관계의 변화

2-1. 부모

2013년 60세이상 어르신 중 71.4%는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2005년 50.7%)

2013년 60세이상이 자녀와 같이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39.7%)
→ 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는 편애세(35.3%), 독립생활 가능(34.0%), 자녀에게 부담없으니까(23.0%) 순

□ 부모는 노후에 자녀와 따로 삶을 희망하지만, 같이 살고 이유로 부모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부양받기 위해서보다는 자녀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학생이 있는 30세이상 서울 가구의 76.4%가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있는 부모의 93.4%는 자녀를 대학교에(대학 64.1%, 대학원 29.3%) 교육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수하고 있음.

□ 자녀를 위해 희생하지만, 60세이상 어르신들이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005년 50.7%에서 2013년 71.4%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에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60세이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한편, 2013년 현재 60세이상이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유로는 자녀의 독립생활 불가능(39.7%)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손녀양육 및 자녀 가사지원을 위해서(6.8%)까지 포함하면 46.5%가 자녀 부양을 위해 같이 살고 있으며, 이는 2011년(39.5%) 대비 증가하였음.
  ○ 다른 이유로는 본인의 독립생활 불가능(30.6%), 같이 살고 싶어서(16.5%) 등임.
  ○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35.3%), 독립생활이 가능해서(34.0%), 자녀에게 부담없으니까(23.0%) 등의 순임.

<table>
<thead>
<tr>
<th>&lt;향후 자녀와 동거의향(60세이상)&gt;</th>
<th>&lt;자녀와 같이사는 이유(60세이상)&gt;</th>
<th>&lt;자녀와 따로사는 이유(60세이상)&gt;</th>
</tr>
</thead>
<tbody>
<tr>
<td>49.3</td>
<td>60.7</td>
<td>38.9</td>
</tr>
<tr>
<td>50.7</td>
<td>61.1</td>
<td>63.1</td>
</tr>
<tr>
<td>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td>
<td>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td>
<td>자녀 부양하기 위해 자녀와 동거</td>
</tr>
</tbody>
</table>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
  - 60세이상이 현재 자녀와 동거여부에 따라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이유와 같이 사는 이유에 응답함.
2-2. 자녀

2012년 부모의 생활비 주체공자는 자녀(47.1%)보다 부모 스스로 해결(52.5%)이 더 높아 노부모 생계는 자녀(가족) 책임(28.7%) 보다는 가족 및 정부·사회 공동책임(54.0%)으로 부양의식 변화 따로 사는 부모님과 만남은 1년에 몇 번(42.7%), 전화통화는 일주일에 한 두번(45.8%)이 가장 많아

□ 부모의 생활비는 자녀 의존보다 부모 스스로 해결이 높아가고 있으며,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자녀)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식은 점차 약해지고 있음.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가구주 부모의 생활비 주체공자는 아들, 딸 등의 자녀가 제공하는 비율(47.1%)보다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52.5%)이 더 높게 나타남.
  ○ 2008년까지는 자녀 부양이 51.3%로 부모 스스로 해결(48.7%)보다 높았으며, 2010년부터 자녀 제공(46.9%)보다 부모 스스로 해결(52.7%)이 높아졌음.

□ 또한, 15세이상 서울시민들은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치관이 가족(자녀) 책임에서 가족 및 정부·사회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로 변화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동의하는 비율은 2006년 60.7%에서 2012년 28.7%로 감소한 반면,
  ○ 부모의 노후생계는 가족 및 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는 2006년 29.1%에서 2012년 54.0%로 증가하였으며, 부모 스스로 해결도 7.7%→13.6%로 증가하였음.

□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구주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교류현황을 보면, 부모님과의 만남은 1년에 몇 번 만난다가 42.7%로 가장 많고, 전화통화는 일주일에 한 두번 한다가 45.8%로 가장 많았음.

"부모님 생활비 주체공자(가구주)" "노부모 부양견해(15세이상)" "따로 사는 부모와의 교류(2012년)"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부모님 생활비 주체공자에서 기타항목 : '06년 0.7%, '08년 0.1%, '10년 0.4%, '12년 0.4%
  - 부모님 생활비 주 제조자 :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 가구주 응답, 조사대상은 15세이상 서울시민
  - 가구주 부모와의 교류현황 :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으며 같이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가구주 응답)
  - 부양견해(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부모님의 노후 생계는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15세이상 응답)
2-3. 부부
가사분담 견해(취업자) : 공평하게 분담 44.5%, 부인이 전적 책임 3.9%
가사분담 실태(맞벌이 가정) : 공평하게 분담 21.9%에 불과하고 부인이 전적 책임이 여전히 23.7%로 높음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여성(58.6%)이 남성(41.6%)보다 높아

□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남성들 역시 여성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어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남녀간에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가사분담에 대한 테도(견해)와 실제 가사분담 행동(실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통계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9년 45.7%에서 2013년 52.6%로 증가함.
○ 또한 201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만13세이상 남성 80.0%, 여성 88.6%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남성 47.0%, 여성 55.6%는 육아 및 가사부담을 꼽았음.

□ 2012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는 44.5%(13세이상 취업자 응답)로 나타난 반면, 실제 맞벌이 가정에서 조차도 공평분담률은 21.9%에 불과하고, 4명 중 한 명은 여전히 부인이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고 응답함.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로는 13세이상 취업자 중 48.9%는 부인이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 44.5%는 공평하게 분담, 3.9%는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함.
○ 반면, 부인(19세이상)이 취업상태에 있는 가정에서 실제로 가사를 부부간에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은 21.9%이고, 부인이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분담한다는 52.0%,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도 2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통계결과를 반영하여 여성(58.6%)이 남성(41.6%)보다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table>
<thead>
<tr>
<th>가사분담 견해 및 실태</th>
<th>(단위: %)</th>
</tr>
</thead>
<tbody>
<tr>
<td>가사분담 견해</td>
<td></td>
</tr>
<tr>
<td>공평하게 분담</td>
<td>44.5%</td>
</tr>
<tr>
<td>부인이 전적 책임</td>
<td>3.9%</td>
</tr>
<tr>
<td>부부가 각기 일할</td>
<td>21.9%</td>
</tr>
<tr>
<td>남편이 주로하거나 전적책임</td>
<td>23.7%</td>
</tr>
<tr>
<td>가사분담 실태</td>
<td></td>
</tr>
<tr>
<td>공평하게 분담</td>
<td>52.0%</td>
</tr>
<tr>
<td>부인이 전적 책임</td>
<td>23.7%</td>
</tr>
<tr>
<td>남편이 주로하거나 전적책임</td>
<td>58.6%</td>
</tr>
<tr>
<td>여성</td>
<td>58.6%</td>
</tr>
<tr>
<td>남성</td>
<td>41.6%</td>
</tr>
</tbody>
</table>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 국가통계포털(KOSIS)
- 견해 :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음(본문은 13세이상 취업자 응답)
- 실태 :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평소 가사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묻음(취업상태에 있는 19세이상 부인이 응답한 결과임)
- 지난 2주일 동안 (2012.5.9-5.22)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습니다? (매우 많이 느꼈습니다+느낀 것임)
2-4. 가족관계 만족도

2012년 13세이상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률 54.2%, 남성(56.7%)이 여성(52.0%)보다 높아 가족 관계별로 보면 자녀(68.4%)>배우자(64.0%)>부모와의 관계(61.9%) 순 여성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률이 가장 낮고, 남성은 배우자에 대한 만족률이 가장 높아

→ 여성: 자녀(67.4%)>부모(61.8%)>배우자(57.2%), 남성: 배우자(70.9%)>자녀(69.7%)>부모(62.1%)

통계에 따르면, 만 13세이상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률은 54.2%, 보통 41.4%, 불만족 4.4%로 응답하였으며, 가족관계 만족률은 남성(56.7%)이 여성(52.0%)보다 높게 나타남.

○ 15세이상 기준으로 서울시민의 가족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률 추이를 보면, 2006년 49.2%에서 2010년 56.6%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53.7%로 감소함.

가족관계를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로 나누어 만족률을 살펴보면, 달라진 부분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률 보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률이 더 높았음.

○ 주요 가족관계별 만족률은 자녀(68.4%), 배우자(64.0%), 부모(61.9%)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가족관계별 만족률은 배우자(70.9%)>자녀(69.7%)>부모(62.1%) 순이고, 여성은 자녀(67.4%)>부모(61.8%)>배우자(57.2%) 순으로 나타남.

또한, 가사분담 실태 및 가정생활 스트레스 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은 남성 보다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70.9%로 높은 반면, 여성은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57.2%로 가장 낮았음.

<table>
<thead>
<tr>
<th>&lt;가족관계 만족률(2012년)&gt;</th>
<th>&lt;성별에 따른 가족관계 만족률&gt;</th>
<th>&lt;가족관계 만족도(13세이상)&gt; (단위: %)</th>
</tr>
</thead>
<tbody>
<tr>
<td>자녀와 관계</td>
<td>부모와 관계</td>
<td>배우자와의 관계</td>
</tr>
<tr>
<td>남성</td>
<td>69.7</td>
<td>67.4</td>
</tr>
<tr>
<td>여성</td>
<td>61.9</td>
<td>64.0</td>
</tr>
</tbody>
</table>

* 자료: 통계청 「2012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관련 인구자료: 가족 관계에서 각 항목(배우자, 자녀, 자기 부모,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3. 가족형성의 변화

3-1. 혼인

2013년 혼인(남편기준) 68,819건으로 2003년 대비 5.4%(3,931건) 감소
평균초혼연령 10년 새 남성은 2.1세, 여성이 2.4세 늘어져
남성 : 2003년 30.5세에서 2013년 32.6세, 여성 : 2003년 28.0세에서 2013년 30.4세
만 15세이상 서울시민의 결혼한 살인수는 선택사항이라는 견해 증가 : 2008년 28.2% → 2012년 34.0%

□ 2013년 서울 혼인한수(남편 기준)는 6만8,819건으로, 2003년(72,750건) 대비 5.4%(3,931 건) 감소하였으며,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한수)은 2013년 6.9건으로, 2003년 7.1 건보다 감소함.
□ 2013년 혼인한수는 1993년 10만3,511건 대비해서는 33.5%(34,692건) 감소함.
□ 조혼인율 역시 1993년 9.5건에서 2013년 6.9건으로 감소함.

□ 이러한 만혼화 추세는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와 연관됨.
□ 만 15세이상 서울시민은 ‘결혼은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2008년 68.0%에서 2012년 62.4%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사항’이라는 견해는 2008년 28.2%에서 2012년 34.0%로 증가하였음.

<table>
<thead>
<tr>
<th>&lt;혼인한수(남편 신고기준)&gt;</th>
<th>&lt;평균 초혼 연령&gt;</th>
<th>&lt;결혼에 대한 태도&gt;</th>
</tr>
</thead>
<tbody>
<tr>
<td><img src="image" alt="" /></td>
<td><img src="image" alt="" /></td>
<td><img src="image" alt="" /></td>
</tr>
</tbody>
</table>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사회조사 각신도', 국가통계포털(KOSIS), 결혼세도에 참조하였음. 산출 2008년 1.3%, 2010년 0.8%, 2012년 1.9%.
  - 조혼인율 : 인구 1천명당 혼인한수(1년간 신고된 혼인한수를 당해연도의 연령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
3-2. 이혼

○ 2013년 이혼 건수는 2003년 대비 12,373건(38.1%) 감소함.

전체 이혼은 2003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50세이상 이혼의 증가로 이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0년부터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추월하고 있음.
○ 연령별 이혼을 살펴보면, 50세이상 남성 이혼은 2003년 6,139건(남성 이혼 중 18.9%)에서 2013년 7,753건(남성 이혼 중 38.5%)으로 10년 새 26.3% 증가했으며, 50세이상 여성 이혼은 2013년 3,717 건(여성 이혼 중 11.1%)에서 2013년 5,702건(여성 이혼 중 28.0%)으로 10년 새 53.4% 증가함.
○ 이러한 추세는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추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혼한 부부 중 20 년 이상 동거한 부부 이혼(황혼이혼) 비중은 1993년 8.6%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31.8%로 증가한 반면, 0~4년이내 부부 이혼(신혼이혼) 비중은 33.8%에서 21.3%로 감소함.

* 이혼비중(구성비)은 이혼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서울시민들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허용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임.
○ 2012년 사회조사 결과,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0.5%로 2012 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44.8%로 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음.
○ 또한 ‘이혼은 선택사항’이라는 의견은 2008년 33.2%에서 2012년 42.1%로 증가함.

<table>
<thead>
<tr>
<th>연령별 이혼구성비 (단위:건,%)</th>
<th>2003년 ~ 2013년</th>
<th>2008년 ~ 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전체 이혼수</td>
<td>32,499</td>
<td>20,126</td>
</tr>
<tr>
<td>구성비</td>
<td>(100.0)</td>
<td>(100.0)</td>
</tr>
<tr>
<td>0~4년이내</td>
<td>13,936</td>
<td>7,753</td>
</tr>
<tr>
<td>구성비</td>
<td>(42.4)</td>
<td>(38.5)</td>
</tr>
<tr>
<td>5~9년이내</td>
<td>5,702</td>
<td>5,000</td>
</tr>
<tr>
<td>구성비</td>
<td>(17.7)</td>
<td>(25.0)</td>
</tr>
<tr>
<td>10~14년이내</td>
<td>3,056</td>
<td>2,637</td>
</tr>
<tr>
<td>구성비</td>
<td>(9.4)</td>
<td>(13.0)</td>
</tr>
<tr>
<td>15~19년이내</td>
<td>1,778</td>
<td>1,244</td>
</tr>
<tr>
<td>구성비</td>
<td>(5.5)</td>
<td>(4.0)</td>
</tr>
<tr>
<td>20년이상</td>
<td>672</td>
<td>651</td>
</tr>
<tr>
<td>구성비</td>
<td>(2.1)</td>
<td>(2.2)</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동거기간별 이혼 (단위:건,%)</th>
<th>2003년 ~ 2013년</th>
<th>2008년 ~ 2010년</th>
</tr>
</thead>
<tbody>
<tr>
<td>전체 이혼수</td>
<td>14,548</td>
<td>12,250</td>
</tr>
<tr>
<td>구성비</td>
<td>(100.0)</td>
<td>(100.0)</td>
</tr>
<tr>
<td>0~4년이내</td>
<td>4,914</td>
<td>4,395</td>
</tr>
<tr>
<td>구성비</td>
<td>(33.8)</td>
<td>(34.5)</td>
</tr>
<tr>
<td>5~9년이내</td>
<td>3,548</td>
<td>3,056</td>
</tr>
<tr>
<td>구성비</td>
<td>(24.4)</td>
<td>(21.0)</td>
</tr>
<tr>
<td>10~14년이내</td>
<td>3,056</td>
<td>2,637</td>
</tr>
<tr>
<td>구성비</td>
<td>(21.0)</td>
<td>(13.9)</td>
</tr>
<tr>
<td>15~19년이내</td>
<td>1,778</td>
<td>1,244</td>
</tr>
<tr>
<td>구성비</td>
<td>(12.1)</td>
<td>(13.7)</td>
</tr>
<tr>
<td>20년이상</td>
<td>672</td>
<td>651</td>
</tr>
<tr>
<td>구성비</td>
<td>(4.7)</td>
<td>(4.0)</td>
</tr>
</tbody>
</table>

* 자료 : 통계청 ‘연민생활태도조사’, ‘사회조사’ 각년, 국가통계청(2013년) : 황혼이혼은 정부의 정책적 요구로 2008년 2.0% 2010년 2.5% 2012년 2.6%로 조사되었다(동거기간 : 혼인기관의 정착기간), 통계청의 정책적 지표로 2008년 2.0% 2010년 2.5% 2012년 2.6%로 조사되었다(동거기간 : 혼인기관의 정착기간)
3-3. 국제결혼 및 이혼(다문화 가족)

2013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5,559건이었고, 이중 외국인 아내와 혼인은 3,223건, 외국인 남편과 혼인은 2,336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은 2,272건, 이중 외국인 아내와 혼인 1,487건, 외국인 남편과 이혼은 785건의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에 전적동의는 증가, 전적 반대는 감소

- 가족형태와 관련된 변화로 외국인과 결혼 및 이혼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가족형태인 다문화 가족의 증가를 나타낸.

- 2013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5,559건으로 2005년 1만 1,507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이 후 감소추세에 있음.
  ○ 2013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결혼 3,223건 중 아내의 국적으로는 중국 39.7%(1,278명), 베트남 18.9%(610명), 일본 8.7%(281명), 미국 8.2%(264명), 필리핀 5.8%(187명) 등의 순위.
  ○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결혼 2,336건 중 남편의 국적으로는 미국 28.5%(665명), 중국 25.9%(604명), 일본 10.9%(254명), 캐나다 8.1%(189명), 호주 4.3%(100명) 등이.

  ○ 2013년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이혼 1,487건 중 아내의 국적으로는 중국 64.2%(954명), 베트남 14.3%(213명), 필리핀 3.7%(55명), 일본 3.4%(51명) 등의 순위.
  ○ 외국남자와 한국여자의 이혼 785건 중 남편의 국적으로는 중국 49.2%(386명), 일본 28.8%(226명), 미국 8.8%(69명), 캐나다 2.3%(18명) 등의 순위.

-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
  ○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에 전적으로 동의(전성)한다는 2008년 9.7%에서 2012년 17.5%로 증가한 반면, 전적반대는 14.1%에서 9.9%로 감소함.

<table>
<thead>
<tr>
<th>외국인과 결혼 건수 및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건수</th>
<th>(단위:건)</th>
</tr>
</thead>
<tbody>
<tr>
<td>외국인 결혼</td>
<td>6,664</td>
</tr>
<tr>
<td>외국인 결혼</td>
<td>4,974</td>
</tr>
<tr>
<td>외국인 결혼</td>
<td>1,690</td>
</tr>
<tr>
<td>외국인 결혼</td>
<td>567</td>
</tr>
<tr>
<td>외국인 결혼</td>
<td>111</td>
</tr>
<tr>
<td>외국인 결혼</td>
<td>456</td>
</tr>
</tbody>
</table>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혼인 및 이혼)", "사회조사 각국도" 국가통계포털(KOSIS)